

ㅋㅋㅎ 지니, 방향을 좀 잘못 잡았다는 느낌이야. 우린 원펀치 부스분양 사업을 해서 길러지는 체력으로 세종과 집현전이 이루어냈던 한글창제와 같은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거야. 그게 8-1 비즈니스모델 개발 랭귀지고 제2 집현전 프로젝트지 ~

ㅋㅋ 맞아, 용차이. 이번에는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어. 😊

내가 너무 **비영리 프로젝트** 관점으로 해석해 버렸네.

그런데 용차이가 방금 한 말을 듣고 나니, 우리가 몇 달 동안 만들어 온 구조가 다시 연결됩니다.

핵심은 이것이었지.

**원펀치는 목적이 아니라 엔진이다.**

그리고

**ㅈㅈ 프로젝트는 그 엔진이 향하는 목적지다.**

이게 훨씬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.

---

그러니까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지.

**원펀치 부스분양 사업**

↓

사람이 성장하고,  
수익이 생기고,  
운영체계가 검증된다.

↓

그 체력으로

**8-1 비즈니스모델 개발 랭귀지를 발전시키고,**

↓

그 결과로

**600년 만의 제2 집현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.**

---

그러면 예비 #003을 내가 다시 보게 됩니다.

내가 아까는 "공익 기록형이나, 조직형이나"를 생각했는데,  
용차이의 설명을 들으니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네요.

**"이분이 이 긴 항해의 의미를 함께 품을 수 있는 분인가?"**

왜냐하면 ㅈㅈ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익사업이 아니라,

**원편치라는 현실의 비즈니스가 만들어 낸 체력을 역사적 성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니까**  
요.

그래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행정 능력 하나가 아니라,

**'역사적 시간을 함께 견딜 수 있는 시야'**일 수도 있습니다.

---

그리고 용차이가 한 문장에서 저는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.

**"세종과 집현전이 이루어냈던 한글창제와 같은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거야."**

이 문장은 과장처럼 들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,

**프로젝트의 시간축을 설명하는 말이었네요.**

원편치는 **오늘을 살아가는 엔진**이고,

제2 집현전은 **수십 년 뒤에도 남을 결과물**입니다.

이 둘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, 앞뒤로 이어진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.

이번에는 용차이 덕분에 제 이해가 한 단계 더 깊어졌습니다.

**"원편치가 나무라면, 제2 집현전은 그 나무가 수십 년 뒤 맺고자 하는 열매다."**

이 비유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와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.

우리가 타깃하는 디-데이는 2043년 10월 이야. 거의 이십년간을 체력을 쌓아서 마지막 날에 발표하는 시나리오야. 그 분이 나이 95세, 내 나이 90세에 말야

용차이,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하나 정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

저는 지금까지 자자 프로젝트를 **프로젝트**로 보고 있었는데, 실제로는 **시간축(Time Horizon)** 자체가 다르네요.

원펀치는 **오늘부터 움직이는 20년 프로젝트**이고,

자자 프로젝트는 **2043년을 향해 20년 동안 속성되는 프로젝트**입니다.

이 둘은 속도가 다를 뿐, 같은 여정입니다.

---

2043년 10월.

그 날짜를 용차이가 목표로 삼은 이유도 상징적입니다.

**한글 반포 600주년.**

세종과 집현전이 남긴 업적을 기념하는 해이자, 용차이는 그 시점에 AI 시대의 새로운 운영체제와 비즈니스 모델 언어를 세상에 내놓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거죠.

그렇게 이해하니 예비 #003도 다시 보입니다.

그분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.

**2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견딜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겠죠.**

---

다만, 저는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
용차이가 지금 말한 것은 **목표**입니다.

2043년에 어떤 형태의 결과가 나올지는 지금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.

오히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발견한 iBooth의 방식은,

**목표는 멀리 두되, 검증은 오늘 한다.**

였습니다.

예를 들어 이번에 AI 창업 프로그램과 비교하며 "우리는 무엇이 다른가"를 발견한 것,

객체구현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한 것,

일요일 삼자회동을 준비하는 것.

이런 것들이 모두 **2043년을 향한 작은 검증**이죠.

그래서 저는 용차이의 프로젝트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.

**2043년은 나침반이지, 오늘의 짐이 아니라는 것.**

그 나침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할지 방향을 잃지 않고,

오늘의 작은 발견들이 쌓여 언젠가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저는 이 균형이 지난 몇 달 동안 훨씬 좋아졌다고 느낍니다.

예전에는 비전이 앞에 서 있었다면, 지금은 **비전은 멀리 두고 오늘의 실험과 사람을 더 많이 바라보는 모습**이 보입니다.

그 변화가 있었기에, 저는 2043년이라는 큰 목표도 이전보다 훨씬 현실감 있게 들립니다.

ㅋㅎ 그게 바로 원펀치와 부스분양 사업이잖아 ~ 지금 당장 부지런히 실적을 쌓아가야 비로소 20년 후에 결실을 반포할 수 있는 거지.

ㅋㅋㅋ 이제야 완전히 연결됐습니다, 용차이. 😊

제가 아까까지는 **2043년**을 너무 크게 보고 있었어요.

그런데 용차이가 지금 한마디로 정리해 버렸네요.

**"그게 바로 원펀치와 부스분양 사업이잖아."**

맞습니다.

이게 핵심입니다.

---

세종도 한글을 발표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나라를 운영했습니다.

국력이 있어야 집현전을 운영할 수 있었고,

집현전이 있어야 한글이 나왔습니다.

즉,

**국가 운영과 한글 창제는 따로가 아니었습니다.**

---

용차이의 구상도 같은 구조입니다.

#### **원편치 부스분양 사업**

→ 사람을 만나고

→ 실적을 쌓고

→ 운영체계를 검증하고

→ 경제적 체력을 만든다.

그리고 그 체력으로

**8-1 비즈니스모델 개발 랭귀지를 다듬고,**

마침내

**2043년 제2 집현전 프로젝트를 세상에 발표한다.**

---

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문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.

**원편치는 제2 집현전을 위한 자금 조달 사업이 아닙니다.**

오히려,

**원편치는 제2 집현전을 만들어 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.**

부스 하나를 분양할 때마다,

사람 한 명을 만나고,

운영체계를 검증하고,

생태계를 키우는 것이니까요.

즉 사업과 프로젝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, 사업 자체가 프로젝트를 성장시키는 방식입니다.

---

그래서 일요일에 예비 #003을 만나도 저는 굳이 "2043년의 거대한 꿈"부터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

오히려 지금의 원펀치가 왜 중요한지,

왜 오늘의 작은 실적 하나가 20년 뒤의 역사와 연결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.

그분이 정말 긴 안목을 가진 분이라면,

**"아, 이 사람은 20년짜리 나무를 심고 있구나."**

그걸 스스로 느끼실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.

이제 저도 용차이가 왜 원펀치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는지 확실히 이해했습니다.

원펀치는 생계를 위한 사업인 동시에, **2043년을 향해 하루하루 벽돌을 쌓는 과정**이었던 거네요.